

## “민생은 어려운데 국회는 하는게 없다”

### 경북대구 '추석 민심' 싸늘

“의정갈등 해소 등 할 일 많은데  
與 무기력하고 野 탄핵 타령만”  
정치권 '국정에 반영 노력' 다짐

추석 연휴 기간 경북·대구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유권자 접촉 활동을 벌이며 싸늘한 정치 민심과 함께 경제를 살려달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가을 정기국회 기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특히 경북 동남부지역 A의원은 18일 “추석 때 만난 일부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한동훈 대표가 손잡고 국정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랐는데 실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야당과의 협치보다 여권 1·2인자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민심도 들려왔다.”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이야기 많았는데 ‘끝까지 밀어붙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의정갈등도 정부에서 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에서 귀경길에 오르는 딸을 향해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아쉬운 인사를 하고 있다.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낸 시민이 대부분이었다” 밝혔다.

강 의원은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며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와 민생 관련 법률 제정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은 “야당들의 입법 독주와 대정부 강경 투쟁에 여당의 대응이 약하다”며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의 의료개혁·노동개혁 등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한 진심은 알고 있다”는 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기업CEO출신이자 공인회계사인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갑·군위군)은 “지역 내 전통시장을 돌아보니 ‘장사가 너무 안된다’ ‘서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어야 여당은 뭐하고 있나’라는 매서운 비판을 들었다”며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뿐”이라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집중호우를 입은 울릉

도 피해현황과 지역 전통시장 및 경로당을 둘러본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은 “경제가 침체된데다 대형마트 및 배달문화로 인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 환경개선 요구와 소나무 재선충 문제 해결 목소리가 높았다”며 “가을 국회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정보 기자 jim@kyongbuk.com  
김현욱 기자 hmkim@kyongbuk.com  
전재용 기자 jiy8820@kyongbuk.com

## 동해안·백두대간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

2026년까지 민간투자 10조 유치  
경북도, 체류형 휴양 메카 댐겔음

경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투자펀드는 대형 사업에 공공이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건립을 추진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책금융인 투자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도는 지역의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 건립에 이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관광휴양 벨트와 소나무 재선충 문제 해결 목소리가 높았다”며 “가을 국회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 “원전 수주 빼기”...尹, 오늘 체코 순방

나흘간 첨단산업 등 협력 논의  
삼성 등 4대 그룹 총수도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에 나선다.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켜 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경제 낙수 효과를 거두고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 계획도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박4

델·리조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

동해안과 백두대간 호텔·리조트 건립은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이 선정됐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정부가 정책 펀드로 재정을 지원한 형태다.

도는 내년 상반기에는 자체 펀드도 출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조업에도 지분투자방식을 도입해 지역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제는 결국 기업이 이끌어 간다”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기업 투자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 일로 길지 않지만, 페르트 파벨 대통령과 페르트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또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폴덴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

양국 모두 경제 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데다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 구조적 특징을 공유해 협력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올해 들어 처음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동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체코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전과 함께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보 기자 jim@kyongbuk.com

## 포항 초고층주상복합단지 실착공 '0'전

원자재 가격 상승 꺾인 수익성에 미분양 사태 장기화도 부담

속보 = 봄이 일던 초고층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포항에선 현재 실착공 '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값 폭등현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7곳 주상복합단지가 추진(경북일보 2021년 9월 23일자 6면 보도) 이후 11곳까지 늘었지만 첫 삽을 뜬 곳이 없으면서 공회전에 머물고 있다.

1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준으로 포항에는 총 11곳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죽도동 주상복합(북구 죽도동 53-5번지 외 14필지, 지하 4층 지상 49층 2동) △상도지구 주상복합 신축공사(남구 상도동 709번지, 지하 3층 지상 49층 2동) △이인지구 주상복합(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90블록 1로

트, 지하 6층 지상 30층 4동) △상도동 주거복합(남구 상도동 643-1 외 10필지, 지하 4층 지상 49층 2동) △상도동 구)경북일보 부지 주상복합(남구 상도동 579-12외 2필지, 지하 4층 지상 49층 2동) △포항시 남구 해도동 207-2 주상복합(남구 해도동 207-2 일원, 지하 4층 지상 48층 2동) △옛포항역부지 주상복합(북구 대흥동 595-170번지 외 31필지, 지하 5층 지상 70층 7동) △포항시 북

구 용흥동 주상복합(북구 용흥동 145-21번지 일원, 지하 4층 지상 46층 2동) △두호동 주상복합(북구 두호동 486번지 일원, 지하 4층 지상 48층 3동) △장성동 1418-1번지 주상복합(북구 장성동 1418-1번지 외 10필지, 지하 4층 지상 48층 2동)이다.

30층부터 최고 70층까지 이르는 초고층주상복합단지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가장 최근인 올해 8월 19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단지들은 수십 억 원대 초기 자금을 통해 부지매입을 한 후 더 이상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2면에 계속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 2024 세계유산축전

|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

9.23 MON — 10.6 SUN

054-950-6426/6772 | grworldheritage.kr

Today	
경북도, 민선 8기 공약 35개 완료	2
北, 또 도발... 동해상 SRBM 발사	4
옛골목은 살아있다-대구음성	7